

# 종이의 힘

기원전 3~4천 년 무렵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라는 다년생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를 뽑아내 종형으로 배열한 뒤 종이 대용으로 문자를 기록한 것이 종이의 시초였다. 이 파피루스(Papyrus)를 대다수 서양의 서지 학자들이 종이의 기원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종이를 뜻하는 영어 Paper의 어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키가 2m가 넘는 이 풀은 줄기의 어느 부분을 잘라 만들었느냐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중간부분을 잘라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발명된 이후 파피루스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는 주요 생산국인 이집트가 아니라 로마제국이었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한 로마인들은 최상품에는 황제의 이름을 따 아우구스투스 종이라고 불렀고 중등품은 황후의 이름을 따 리비아 종이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종이의 소비량이 많은 나라를 문화선진국으로 인정해 주는 습성이 있었다고 한다.

1세기경 중국 후한에서 본격적으로 지금의 종이에 가장 근접한 나무껍질로 만든 종이 발명된 이후 우리나라에 종이 들어온 것은 서기 4~500년이었다고 한다. 종이의 보급은 동서를 막론하고 교육이라는 인류의 원대한 목표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흔히 창호지로 불리는 한지가 오랜 시간 종이의 주종을 이루어왔고, 수공예에 의한 소량생산이었기 때문에 종이는 언제나 귀한 대접을 받아 왔다. 장마철이 지난 다음 책을 말리는 일을 폭서(曝書)라

우리나라의 한지는 수공예에 의한 소량생산이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장마철이 지난 다음엔 따사로운 가을 햇볕에 책을 말리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근세에 들어 종이 문화는 펄프에 의존하는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대량생산하게 됐지만 국제 펄프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종이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힘을 생각할 때다.

하여 중요한 행사로 여겼을 정도였다.

근세에 들어와 일제에 의해 양지(洋紙)가 들어오면서 국내의 종이문화는 펄프에 의존하는 형태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출판업계는 용지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생긴 38선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종이의 원료인 펄프의 주요 생산지였던 북한과의 교역이 끊기고, 해방전 일본인들이 신문사나 인쇄소에 쌓아놓았던 채고용지가 바닥이 나면서 벌어진 사태였다. 1946년 12월 10일자 조선일보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건국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문서운동은 현재 총 소요량의 1할도 안되는 휴지를 원료 하는 몇개의 재생제지(再生製紙) 공장의 생산품에 매여 달려 허덕이고 있어 서울만을 단위로 따져보아도 3백여 개소 출판사가 총휴업에 빠져 있고 6백 인쇄

소도 용지가 없어 인쇄를 못하고 있는 기막힌 현상에 있으며, 따라서 이 용지 기근은 각학교 교육에 막대한 불편을 주어 소학 중학 전문대학 등의 교과서를 못만들고 또 용지 구입난으로 거의 수업불가능 상태에서 학교 당국은 임시 교과서 용지와 학용지 구득에 동분서주하는 현상이라고 한다.”(원문 인용)

당시 이같은 용지난을 극복하는 데 등장한 종이가 두껍고 질긴 닳나무를 원료로 해서 만든 ‘선화지’였다. 이 종이를 재생, 3생하여 책을 찍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해방 5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출판계는 또 다시 용지난을 맞이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의 영향으로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의 벌채량이 급격히 줄었고, 그로 인해 국제 펄프가격이 94년 한해 동안에만 80%이상 오른 것이다. 원인은 우리 내부에도 있다. 종이의 대량 소비자인 신문사들이 증면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번 읽지도 않고 버리는 홍보 팜플렛이 쓰레기통마다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상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국제 펄프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주는 종이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인 것 같다. 파피루스 수입국이었던 로마가 종이에 황제의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을 전범으로 삼아도 좋고, 해방 직후 ‘선화지’를 세번 네번 재생해 쓰면서 용지난을 극복한 사실을 전범으로 삼아도 좋다.

# 출판저널

통권 제175호/1995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료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료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료용지에 본사 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Good Design Good Partner

##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좋은 기획이 출판인의 꿈이라면, 좋은 표지는 미술인의 몫입니다.



**양무리**  
출판·편집·광고·디자인  
TEL 267-0396, 272-8097

“사람의 옷치장도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듯이 책들도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 기본 좋게 느껴지는 표지!

**표지디자인전문회사**  
C & C  
CROSS & COMMUNICATION  
전화: 274-4281/2 FAX: 274-4283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180-20 보광빌딩  
\* 전화하여 표지강을 찾아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편안한 만남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즈니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책

## 바쇼의 연못

정신의 해독제로서 라즈니쉬가 제시한 것은 선(禪)이었다. 라즈니쉬의 선시 강의를 골라 구성한 이 책에서 일시적인 인간의 삶을 초월하여 불멸을 찾을 수 있는 법칙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연, 김성식 옮김

해람 전화 702-7368 팩스 702-7369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722-1945 ☎(02)733-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